

평생교육·문화활동... 어르신들의 신나는 100세 시대

무주종합복지관 해피스쿨 개강

무주군은 '2018 무주종합복지관 해피스쿨'이 1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무주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황정수 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강생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식과 프로그램 안내, 안전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황정수 군수는 이 자리에서 "만족스러운 삶 자체를 지역발전의 토대로 삼기 위해 평생학습의 원년으로 삼았다"라며 "올 1년 재밌게 배우며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군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고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12월까지 운영될 무주종합복지관 해피스쿨 프로그램(수강생 총 1,037명)은 한글과 요가, 스마트폰 활용, 커플댄스, 태권도 품새 등 총 33개 강좌로 운영되며 올해 처음 사진교실이 개설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종합복지관 이영재 관장은 "올해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해피스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종합복지관(2005년 설립, 2006년부터 삼동회 위탁 운영)에 등록된 회원 수는 5,226명으로 하루 평균 34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요망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무주군



무주군은 '2018 무주종합복지관 해피스쿨'이 1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무주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황정수 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강생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은 종합복지관 운영에 연간 26억3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무주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월 현재 7,701명으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주군

은 올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를 비롯한 노인일자리, 경로식당 운영 등에 총 260여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시내버스 기사 이증근씨, 의료인 시민상 수여

전주시는 교통사고로 인해 불길에 휩싸인 화재차량에 뛰어들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전주시내버스 기사에게 의료인 시민상을 수여, 격려했다.

시는 1일 시장실에서 전주시내버스 기사 이증근(61) 씨에게 전주시민을 대신해 의료인 시민상을 수여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 전주세무서 삼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차량에서 불길 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고 화재가 난 차량에 뛰어들어 사고자를 구조했다.

특히 이 씨가 사고자를 구조한 이후 곧바로 사고차량이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이는 등 사고자는 물론 구조에 나선 이 씨 역시 위험했던 순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규남 기자



진안군 성암마을 박정목씨, 장학재단에 1000만원 기탁

진안군 주천면 성암마을에 사는 박정목(91세) 할머니가 올해 구수를 맞아 1일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1000만원을 기탁해 엄동설한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직접 장학재단을 찾은 박 할머니는 23살 때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당시 3살 난 아들 1명을 키우며 검소하게 생활해왔다.

정직함을 철학으로 열심히 사시면서 아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 키워 내셨다.

박 할머니는 "보훈가족으로 평소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늘 고마움을 간직하며 살았다"며 "인생의 황혼기에 보람되고 뜻깊은 일을 생각하던 차에 진안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제도를 알게 되어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덕진동지역발전협의회, 설 맞아 백미 50포 주민센터에 전달

덕진동지역발전협의회는 1일 설 명절을 맞아 백미(10kg) 50포를 덕진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며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정, 홀로어르신, 장애인 세대 등 소외계층에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덕진동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 항상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및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현금과 현물을 기탁해 왔다. 김정숙 협의회 회장은 "소외된 이웃이 한 사람도 없는 따뜻한 명절을 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도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나눔을 펼치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종합로타리클럽, 예수병원에 대형 검진차량 기증

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종합로타리클럽은 지난 1일 아름다운 컨벤션에서 예수병원에 대형 검진차량을 기증했다.

로타리 재단 글로벌 보조금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필리핀, 대만, 한국 등 3개국의 로타리인들이 파트너십을 체결해 미화 152,000달러(원화 1억 7176만원)로 대형버스를 구입했고 예수병원에서 1억원 상당의 첨단 의료기기를 탑재해 총 2억 7천여만 원 기금이 투입됐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행한 글로벌 보조금 프로젝트로 최대 규모이다. 예수병원 의료봉사팀은 향후 이 차량으로 도내 농어촌지역 242곳과 전북 군산, 전북 부안군의 유인도 25곳에 거주하는 주민 약 32만명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매월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할 예정이다.

전주종합로타리클럽 회원들도 자원 봉사자로 참여, 지난 2002년부터 지난 해까지 예수병원 새입원환자 후원회와 함께 15년동안 지속적으로 '극빈 입원환자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금까지 총 244명에게 입원비 지원금 등으로 6억3,000여 만원을 지원해 입으로 투병하는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알림

▲전북PD협회(회장 황운택) 신년회 및 2017 올해의 PD상 시상식=일시: 2월 2일(금) 오후 7시 장소: 전주 오벨리스 웨딩홀

덕진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 홍보 박차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해 11월부터 긴급복지 지원 위기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이란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상실과 중한질병, 방임 및 유기, 재난과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 주 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휴·폐업 등 위기 사유를 '부 소득자'의 실직까지 확대하고 기타 사업장의 휴·폐업 외에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사유도 추가 됐다. 이 뿐만 아니라 단전 시 1개월 경과 요건을 삭제해 단전 즉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 사유 인정 요건이 완화 됐다.

/채규남 기자

무진정소방서, 위기대응능력 향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무진정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지난달 31일 무주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들과 교사 30여명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기간을 맞아 각종 예방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조기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적으로 안전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접 체험하는 방법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안전교육내용은 ▲애니메이션 시청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119신고 요령 ▲연기소화기 체험 ▲공기호흡기 등 각종 장비 체험 ▲소방공무원이 하는 일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소방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한편,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한 학교나 단체는 무진정소방서 예방안전팀(350-6242)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010-2333-4791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서산시 272-9417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6-3787
호주시사 010-8645-9355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5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짐으로 가던 길이었습시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시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시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쁜 학교 문화는 행복한 교육의 시작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우원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